

## 경쟁과 협력이 대인지각 비대칭성과 자기지각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이 기 뽐

노 혜 경<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본 연구는 경쟁과 협력 상황에서 대인지각 비대칭성과 자기지각 비대칭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다. 연구 1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대인지각 비대칭성과 자기지각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두 명으로 구성된 46개의 쌍이 경쟁 조건과 협력 조건으로 무선할당 되었으며 할당 전 후에 비대칭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건 할당 전에는 대인지각 비대칭성이 관찰되었고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조건 할당 후에는 협력 조건보다 경쟁 조건에서 더 비대칭성이 관찰되었다. 경쟁 조건의 대인지각 비대칭성과 자기지각 비대칭성 그리고 협력 조건의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협력 조건의 대인지각 비대칭성은 협력 조작 후 더 작아졌다. 연구 2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자기지각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관련 있는 개인차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두 명으로 구성된 47개 쌍이 경쟁 조건과 협력 조건으로 무선할당 되었으며, 할당 전에 사적 자의식, 독립적 자아해석, 자기지각 비대칭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할당 후에 자기지각 비대칭성 설문조사를 재실시하였다. 조건 할당 전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관찰되었고 조건 할당 후 협력 조건보다 경쟁 조건에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은 자기지각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의 조절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주요어 : 경쟁, 협력, 비대칭성, 대인지각, 자기지각, 사적 자의식, 독립적 자아해석

<sup>†</sup> 교신저자: 노혜경,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04310)  
Tel : 02-2077-7525, E-mail : rrhhkk@sookmyung.ac.kr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대인관계는 개인의 삶과 만족, 그리고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Kessler와 동료들(Kessler, Price, & Wortman, 1985)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대인관계는 행복감을 증진시키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부정적 대인관계는 우울감이나 불안의 주된 원인일 수 있으며 개인의 적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원만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나 동기, 행동, 정서 등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하고자 인지 도식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인지 도식은 여러 인지 오류를 내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오류는 Jones와 Harris(1967)가 설명한 기본적 귀인 오류이다. 이는 행위자가 하는 행동이 다른 모든 것을 암도하여 개인의 행동을 성향으로 귀인하는 오류이다. ‘행위자·관찰자 효과’ 또한 대표적인 귀인 오류 중의 하나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황 맥락과 환경 요인을 고려해 외적 귀인을 하지만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 특성에서 유래했다고 정의 내리는 경향이다. 이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증명되었다 (Gilbert & Malone, 1995; Johns & Nisbett, 1972; Ross, 1977). 개인이 행위자일 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관찰자의 입장일 때 개인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뿐이다. 이러한 조망 차이(Gilbert & Malone, 1995; Johns & Nisbett, 1972; Ross, 1977)는 인지 편향을 불러올 수 있고, 이 효과는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을 설명할 하나님의 근거를 제시해준다.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이란 내가 타인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비대칭성은 대인관계 측면과 개인 내적 측면 두 가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 Pronin

과 그의 동료들(Pronin, Kruger, Savitsky, & Ross, 2001)은 비대칭성을 다룬 논문에서 두 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자신이 타인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측면과(대인관계 측면), 더 나아가 타인이 타인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더 잘 알고 있다고(개인 내적 측면) 생각하는 측면이다. 즉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은 타인이 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타인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진정한 모습을 알아봐주지 못한다는 생각은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대칭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대인 간 갈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과 협력 상황에서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다. 국내외 연구 중에서는 경쟁과 협력 상황에서 비대칭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경쟁과 협력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이다. 친구 관계나 조직 관계와 같이 협력과 경쟁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를 다루는 방식과 인지 방식의 차이로 인해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경쟁과 협력을 통해 최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과 경쟁/협력하고 있는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김지경, 2006). 하지만 상대가 자신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비대칭성 상황에서는 신뢰가 발생하기 어렵다. 안혜연(2010)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지각 비대칭성 상황에서는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경쟁과 협력 상황에서 비대칭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이 현상이 신뢰의 부족과 성과 하락까지 이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비대칭성이 경쟁과 협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대칭성의 영향 요인으로서 상황 요인의 역할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 비대칭성 연구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에 대해 설명하는 기제 중 하나는 행위자-관찰자 효과이다. 행위자-관찰자 효과는 여러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정보 양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개인은 행위자일 때는 행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관찰자일 때는 행위자일 때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Watson, 1982). 즉, 행위자인 개인은 자신의 특성 정보와 상황 정보 모두를 파악 가능하지만 상황 정보는 일시 적이고 변화 가능하다. 따라서 행위자의 상황 정보에 대해 행위자만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자신의 행동을 평가할 때는 상황과 특성 모두를 고려하지만, 타인의 행동을 관찰자로서 평가할 때는 행위자의 특성을 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Nisbett, Caputo, Legant, & Marecek, 1973). 두 번째로 행위자는 스스로에 대해서 일관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주변 상황이 훨씬 더 현저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관찰자에게는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것이 행위자의 특성이며 따라서 행위자의 기질이 더 현저하다. 세 번째로, 동기적 측면에서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관찰자는 행위자의 안정적인 특성인 기질에 중점을 두지만, 행위자는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기 위해 상황 정보를 중시한다(McArthur, 1981). 사람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Nisbett et al., 1973). 반면 타인의 행동은 그의 기질이나 성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쉽게 판단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타인을 판단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그들을 판단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아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상황 정보를 간과하여 성급하고 정확하지 않은 판단

을 내리지만(Ross & Nisbett, 1991) 자신의 지각이 객관적 정확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Dunning과 동료들의 연구에서 (Dunning, Griffin, Milojkovic, & Ross, 1990) 예측 항목의 유형(예: 가상 딜레마, 실험실 상황, 일상 행동 보고)이나 예측 대상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하는 예측의 자신감 수준은 실제 정확성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았다. 또한 Van Boven과 동료들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판단 능력에 대해서는 실제 정확성과는 다른 지나친 자신감을 보이는 반면, 타인의 귀인/판단 능력에 대해서는 쉽게 오류를 발견하고, 타인이 특성 귀인을 하는 경향을 과대평가한다(Van Boven, Kamada, & Gilovich, 1999). 이와 같은 경향들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을 판단하는 능력이 타인이 자신을 판단하는 능력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자기평가에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은 과신하지만 타인의 능력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riedrich의 연구(1996)에서 개인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기 고양 경향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타인들이 갖는 자기 고양은 쉽게 파악하였으며, Vallone과 동료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때는 지나친 자신감을 보였으나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Vallone, Griffin, Lin, & Ross, 1990).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 능력이 대인관계 측면과 개인 내적 측면 모두에서 타인들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Pronin et al., 2001)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평가에서의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이라고 명명하였다.

Pronin 등(2001)은 비대칭성의 두 측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지식(interpersonal knowledge)은 ‘상대가 나를 아는 것 보다 내가 상대방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지식(intrapersonal knowledge)은 ‘상대가 상대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지선(2004)의 연구에서 ‘친구가 나를 아

는 것보다도 내가 친구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인지각의 비대칭성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친구가 친구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 스스로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지각의 비대칭성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즉 대인지각 측면과 자기지각 측면 모두에서 내 인지 능력이 타인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지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이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Pronin et al., 2001)에 따르면 실험을 목적으로 만난 낯선 파트너 관계를 비롯하여 룸메이트 관계, 친구 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서 비대칭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대칭성은 다양한 관계의 친밀감 정도와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관찰되었다. 비대칭성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Pronin과 동료들의 2001년 연구 실험 6에 따르면 진보 집단과 보수 집단의 경우, 각각 상대 집단보다 본인이 속한 집단이 상대방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남성 집단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여성 집단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대성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으며, 본인의 성별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Pronin, Berger와 Molouki(2007)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은 타인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동조 행위를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의 기제로서 스스로에 대해 자신은 정확히 통찰하고 있지만 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자기관찰의 착각(introspection illusion)을 내보였다. 사람들은 편향 지각에서도 비대칭성을 나타냈다(Pronin & Kruger, 2007). 연구에 따르면, 학업이나 업무에서 성공을 내적 귀인하고 실패를 외적 귀인하는 자기 위주 편향에 있어 자신보다 타인이 훨씬 더 그 편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선(2004)의 연구에서도 친구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친구를 더 잘 알고

있으며, 친구가 친구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는 비대칭성이 나타났다. 반면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는 자기 겸양 편향을 보이지만 타인의 성취에는 타인 중진 편향을 보이는 동양권 문화의 집합주의 성향에 의해(Yamauchi, 1998) 궁정적/부정적 특성에서 다른 비대칭성이 나타났다. 대인지각에서는 부정적 특성에서는 비대칭성을 보이지 않고 궁정적 특성에서만 비대칭성이 관찰되었고, 자기지각에서는 자신의 궁정적 특성보다 부정적 특성을 더 잘 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안혜연(2010)의 연구에서는 대인지각과 자기지각 비대칭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더불어 친구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친구가 친구를 아는 것보다 내가 친구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대인지각 비대칭성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 김영룡(2007)의 연구에서도 타인이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을 자신이 타인에게 끼치는 영향보다 더 크게 지각한다는 비대칭성이 나타났으며, 이 경향은 다양한 영역(가치관, 취미, 기호, 삶, 죽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자신의 영향력을 지각할 때와 상대의 영향력을 지각할 때의 정보의 양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비대칭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비대칭성의 존재가 다양한 관계에서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거나, 이러한 비대칭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타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 상황 혹은 타인의 존재를 가정하는 상황 설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대칭성이 경쟁/협력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람들의 인지 방식과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다른 경쟁과 협조의 사회적 상황에서 비대칭성이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 상황 특성의 차이: 경쟁과 협력

지금까지의 대인지각 연구는 현저성, 부정성, 외모, 고정관념 등 대상 자체를 고려했다.

그러나 맥락과 상황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대인지각이 더욱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개인은 타인의 특성을 추론할 때 상황 맥락을 고려한다. 특정 역할 관계에 따라 맥락화한 지각을 할 때 역할 기대에 따라 타인을 판단한다(이혜경, 1999). 따라서 경쟁 상황에서 경쟁자인 상대를 지각할 때와 협력 상황에서 협력자인 상대를 지각할 때 그 상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경쟁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서거나 이기려고 서로 겨루는 상황을 의미한다 (Wisman, 2000). 경쟁 상황에서는 타인을 이기기 위하여 비교 현상이 발생하고 타인보다 자신이 얼마나 더 우월한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박용호, 김정근, 이광오, 2016; Stapel & Koomen, 2005). 협력이란 당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는 것으로(Skinner, Gassenheimer, & Kelley, 1992)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거나,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Anderson & Narus, 1990).

경쟁과 협력 상황은 사람들의 인지 사고에 상당한 차이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쟁 상황에서는 좁은 사고(narrow-mind set)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협력 상황에서는 넓은 사고(broad-mind set)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김영조, 2014). 이에 관한 선행연구 중 하나로, Carnevale과 Probst(1998)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경쟁, 협력, 그리고 통제 조건에서 범주화 과제를 실시했다. 범주화 과제란 운송 수단, 가구, 채소, 의류라는 범주에 소속 정도가 약한 항목(운송 수단인 경우: 낙타), 적당한 항목(비행기), 강한 항목(버스)을 어떻게 연결 짓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경쟁 상황에서는 주어진 항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더 낮고, 범주와 주어진 항목(exemplar) 간의 적합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 등 한정된 범주화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협력 상황에서는 항목 간 관련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사물을 폭넓게 범주

화하였다. Stapel과 Koomen(2005)은 학부생 대상으로 경쟁 상황과 협력 상황이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드러났다. 경쟁 상황에서는 항목에 대한 대조 효과가 나타났으나 협력 상황에서는 동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Toma, Yzerbyt와 Corneille(2010)는 학부생 대상으로 자신과 타인을 특성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때 참가자들은 경쟁 상황보다 협력 상황일 때 자신과 타인을 더 가깝고 유사하게 느낀다고 평가하였다. Norton, Lamberton과 Naylor(2013)의 연구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있어 협력 상황에서보다 경쟁 상황에서 비유사성이 더 부각 되었다. 경쟁과 협력 상황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두 상황에서 각기 다른 인지적 사고가 유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쟁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위 범위가 좁으며 범주화가 한정된 좁은 사고가 활성화되지만, 협력 상황에서는 주위 범위가 넓으며 폭넓은 범주화를 하는 넓은 사고가 활성화된다.

경쟁 상황과 협력 상황은 개인이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경쟁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최소화하고자 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집중한다(Walton & McKersie, 1965). 경쟁 상황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Putnam & Jones, 1982; Wilson & Putnam, 1990),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내주기보다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정보를 내주도록 상대를 설득하거나 상대방과 논쟁하게 된다(Lewis & Fry, 1977). 경쟁이 심해질 경우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유출하기도 한다(Pruitt & Lewis, 1975). 반면 협력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지며(Pruitt, 1983)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자 한다. 협력 상황에서는 정보 교환을 통해 상대의 입장 이해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한다(Pruitt & Lewis,

1975; Wilson & Putnam, 1990).

경쟁과 협력의 상황 특성은 대인지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Thomas와 동료들의 연구 (Thomas, Davoli, & Brockmole, 2014)에 따르면 통제 조건과 비교했을 때 경쟁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상대방과 자신의 물리적 거리가 더 멀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협력 조건에서는 통제 조건과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Proni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Pronin et al., 2001, 연구 6)에서도 참가자들은 자신과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집단과 논쟁을 벌일 때, 자신들은 상대의 입장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상대는 그들의 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쟁 상황과 협력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지 특성과 정보 다른 방식, 대인지각 차이를 고려할 때, 협력 상황과 경쟁 상황에서 비대칭성이 다르게 나타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경쟁 상황에서 활성화된 좁은 사고에 의해 사람들은 타인의 시각을 고려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시각에 집중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자신의 정보 유출은 줄이고 경쟁 상대의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 주력한다. 자신과 경쟁 상대의 거리를 더 멀게 지각하며, 논쟁 상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쟁과 갈등은 실제적인 목표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각된 불일치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타인의 동기와 목표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도 발생한다(Maki, Thorngate, & McClintock, 1979). 경쟁에 대한 예측만으로 사고가 굳고 창의적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며(Carnevale & Probst, 1998) 경쟁, 갈등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사고는 단순화된다(Tetlock, 1988). 반면 협력 상황에서는 활성화된 넓은 사고에 의해 사람들이 자신의 시각과 더불어 타인의 시각을 고려하고, 정보 교환을 통해 상대의 입장과 나의 입장 이해하는 데에 집중한다. 따라서 경쟁 상황에서는 본인 입장만 고려하고 타인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하므로, 타인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협력 상황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입장 모두를 고려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타인에게도 자신의 정보가 전달되므로, 타인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착각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 경쟁과 협력 상황에서 비대칭성이 다르게 관찰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경쟁 및 협력 상황에서 대인지각 비대칭성과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경쟁과 협력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인지 사고를 하며 (김영조, 2014; Carnevale & Probst, 1998; Norton et al., 2013; Stapel & Koomen, 2005; Toma et al., 2010) 정보를 다른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Lewis & Fry, 1977; Pruitt, 1983; Putnam & Jones, 1982; Pruitt & Lewis, 1975; Walton & McKersie, 1965; Wilson & Putnam, 1990)에 따른다면 비대칭성 또한 경쟁 상황과 협력 상황에서 다르게 관찰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가설

가설 1. 대인지각 비대칭성은 협력 상황보다 경쟁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협력 상황보다 경쟁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경쟁과 협력 상황을 참가자 간 변인, 대인지각과 자기지각을 참가자 내 변인으로 둔 혼합 설계로 참가자가 경쟁 혹은 협력 상황에 배정되도록 설정하였으며, 각 조건에 배정되는 참가자는 2인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 방법

### 연구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심리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 참가자 92명을 모집하였으며 모두 여성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참여 대가로 크레딧을 제공하였다. 경쟁 조건에 46명, 협력 조건에 46명이 배정되었으며, 각 조건 배정은 무선으로 이루어졌다.

### 측정도구

####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

비대칭성 측정을 위해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중요 특성을 설명하는 이중관점 모형(Dual-perspective model)을 사용하여 문항을 구성했다(Abele & Wojciszke, 2007; 한규석, 2017에서 재인용). 이 모형을 구성하는 중요 특성 두 가지는 주체성(agency)과 어울림성(communion) 두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 특질 네 가지와 어울림성 특질 네 가지를 사용하여 비대칭성을 측정하였다. 주체성과 어울림성 요인은 Abele과 Wojciszke(2007)의 선행 연구에서 정리한 것을 참고하였다. 주체성 특질은 주장성, 창의성, 똑똑함, 자신감이었으며 어울림성 요인은 포용력, 신뢰감, 겸양, 감수성이었다. 위의 여덟 가지 특질과 포괄적인 비대칭성 측정 문항을 합쳐 총 아홉 가지 문항으로 비대칭성 문항을 구성했다. 대인지각 비대칭성을 측정하기 위해 ‘당신은 상대방을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과 ‘상대방은 당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으로 짜을 구성하였다. 자기지각 비대칭성도 대인지각 문항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과 ‘상대방은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으로 짜을 구성하였다. 즉 전반적 비대칭성을 묻는 문항으로 ‘당신은 상대방을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사용하였고, 여덟 가지 요인의 문항은 ‘당신은 상대방의 주장성에 대해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참가자가 ‘당신’과 ‘상대방’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도록 설문지 상단에 ‘당신’은 실험 참가자를 의미하고 ‘상대방’은 함께 실험에 참가하는 다른 참가자임을 명시하였다. 비대칭성 설문지는 ‘전혀 모른다’ 1점에서부터 ‘매우 잘 안다’ 8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작 전 설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가 .96,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는 .97, 내가 나를 아는 정도는 .86,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는 .93이었다. 조작 후 설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가 .97,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는 .97, 내가 나를 아는 정도는 .90,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는 .93이었다.

#### 경쟁 및 협력 조작

같은 시간에 실험을 신청한 두 명의 참가자를 무작위로 경쟁과 협력 조건에 배정하였다. 동일 난이도의 두 가지 퍼즐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여 경쟁과 협력 조건을 조작하였다. 경쟁 조건은 15분의 제한 시간 동안 퍼즐을 더 빨리 완성하는 사람에게 간식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작하였다. 퍼즐 종류가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두 가지 퍼즐을 번갈아 2차례 실시하였다. 퍼즐 완성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상대의 점수와 퍼즐 완성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좌석을 배치하였다. 협력 조건에서는 15분 동안 퍼즐을 함께 맞추고 완성도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이었으며, 두 참가자에게 동일한 보상이 주어졌다. 퍼즐의 완성도가 80%~100%일 경우 각 참가자에게 4개의 간식을 제공했고, 50%~80%일 경우 2개, 50% 이하일 경우 간식 보상이 제공되지 않았다. 퍼즐 점수 부여는 완성된 퍼즐 모양 그림과 참가자가 완성한 퍼즐을 비교하여 겹치는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뒤, 실험 도우미가 두

참가자에게 완성 정도와 점수를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협력 조건도 경쟁 조건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퍼즐을 모두 수행하였다. 또한 경쟁과 협력 상황이 잘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가 과제 수행 상황을 경쟁과 협력 중 어떤 것으로 지각하는지 표시하는 조작 점검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문항은 1점이 완전한 경쟁을 8점이 완전한 협력을 의미하였다.

### 절차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커버스토리와 함께 실험을 안내하였고 실험 참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커버스토리는 '개인과 타인이 각각 (경쟁 조건)/함께(협력 조건) 과제를 수행한 후 대인지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5분 간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며, 대화 가이드라인(이름, 학년, 전공, 가족·친구 관계, 취미, 특기)을 제공했다. 대화 시간 동안 실험 진행자는 실험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 사전 측정이 이루어졌다. 설문 실시 직전에 각 문항은 여덟 가지 요인에 대해서 참가자 본인과 상대방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묻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 후 15분 동안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과 과제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제공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경쟁 조건의 경우 두 가지 퍼즐을 번갈아서 각각 수행하였고, 협력 조건의 경우 두 참가자가 함께 두 가지 퍼즐을

차례로 수행하였다. 퍼즐 과제가 끝난 후 보상을 제공했으며 조작 점검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 사후 측정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디브리핑이 이루어지고 사후 동의서를 작성한 뒤 실험이 종료되었다.

### 결과

#### 조작점검

경쟁과 협력의 두 조건으로 실험 집단을 조작한 것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작점검 문항을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쟁 조건( $M = 3.09$ )보다 협력 조건 집단( $M = 6.98$ )에서 더 과제 상황을 협력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90) = -18.806, p < .001$ .

#### 실험 쳐치 전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

쳐치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t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비대칭성 9문항을 모두 합산하여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 '내가 나를 아는 정도',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문항으로 범주화하였다. 문항은 세부 특질 여덟 가지 문항과 전체적 특질 한 가지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도 사용된 방식과 마찬가지로 합산 방식을 사용하였다(안혜연, 2010). 표 1에서 살펴볼

표 1. 경쟁과 협력 이전 지식의 비대칭성

		합산 평균	표준편차	<i>t</i>	유의확률(양측)
대인지각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	34.26	13.42	7.268	< .001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	30.97	12.92		
자기지각	내가 나를 아는 정도	51.28	7.21	0.165	.869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51.16	7.95		

수 있듯이, 대인지각에서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가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서, 대인지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자기지각의 경우, ‘내가 나를 아는 정도’와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 실험 처치 후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

경쟁 및 협력 행동 이후 대인지각과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2와 같이 경쟁 집단 조건에서는 대인지각의 비대칭성이 관찰되었다.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가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협력 집단 조건에서는 대인지각 비대칭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가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체 간 요인을 경쟁과 협력 집단, 개체 내 요인을 내가 나를 아는 정도와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로 설정하였다. 먼저 집단의 주효과가  $R1, 90 = 0.176, p = .676$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집단과 자기지각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R1, 90 = 0.220, p = .641$ . 따라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협력 상황과 경쟁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참가자 내 변인의 주효과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다,  $R1, 90$

$= 17.57,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집단과 대인지각의 상호작용 효과도  $R1, 90 = 5.440, p = .02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참가자 내 변인의 주효과는  $R1, 90 = 10.98,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대인지각 비대칭성은 협력 상황과 경쟁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나며, 경쟁 상황에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3은 자기지각 비대칭성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쟁 집단 조건과 협력 집단 조건 모두에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체 간 요인을 경쟁과 협력 집단, 개체 내 요인을 내가 나를 아는 정도와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로 설정하였다. 먼저 집단의 주효과가  $R1, 90 = 0.176, p = .676$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집단과 자기지각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R1, 90 = 0.220, p = .641$ . 따라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협력 상황과 경쟁 상황에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참가자 내 변인의 주효과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다,  $R1, 90$

표 2. 경쟁과 협력 이후 대인지각 비대칭성

		합산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측)
경쟁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	33.69	10.89	3.028	.002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	29.57	12.20		
협력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	41.93	11.93	1.031	.308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	41.22	12.54		

표 3. 경쟁과 협력 이후 자기지각 비대칭성

		합산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측)
경쟁	내가 나를 아는 정도	50.63	7.20	-0.816	.419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51.35	7.03		
협력	내가 나를 아는 정도	50.78	6.94	-0.757	.186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51.20	6.23		

= 3.142,  $p = .080$ .

경쟁 조건에서 과제에서의 승패에 따라서는 대인지각과 자기지각이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 $t(44) = -0.782, p = .439$ ),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 $t(44) = -0.431, p = .668$ ), 내가 나를 아는 정도( $t(44) = -0.407, p = .686$ ),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t(44) = -1.502, p = .140$ ) 모두 마찬가지였다.

#### 사전사후 비대칭성 변화

경쟁 집단과 협력 집단의 사전사후 비대칭성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대인지각 비대칭성 점수는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에서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를 뺄셈하여 계산하였고, 자기지각 비대칭성 점수는 ‘내가 나를 아는 정도’에서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를 뺄셈하여 계산하였다. 경쟁 집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 대인지각 비대칭성( $M = 3.67, SD = 4.32$ )에 비해 사후 대인지각 비대칭성( $M = 4.13, SD = 8.73$ )이 증가하였으나( $t(45) = -0.321, p = .750$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기지각 비대칭성 또한 사전( $M = 0.01, SD = 6.31$ )과 사후( $M = -0.72, SD = 5.97$ )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t(45) = 0.926, p = .359$ ). 협력 집단의 경우 사전 대인지각 비대칭성( $M = 2.85, SD = 4.41$ )에 비해 사후 대인지각 비대칭성( $M = 0.72, SD = 4.71$ )이 감소하였고( $t(45) = 2.884, p = .006$ ), 자기지각 비대칭성의 통계적 차이는 사전과( $M = 0.24, SD = 7.57$ ) 사후에서( $M = -1.41, SD = 5.46$ ) 발생하지 않았다, ( $t(45) = 1.578, p = .122$ ). 유의한 결과를 보인 협력 조건 대인지각은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와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가 조작 전보다 증가하였다. 실험 쳐치 전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 $M = 36.98, SD = 13.75$ )에 비해 실험 쳐치 후 내가 타인을 정도( $M = 41.93, SD = 11.93$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t(45) = -5.008, p < .001$ ),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도 실험 쳐치 전보다( $M = 34.13, SD = 13.03$ ) 실험

쳐치 후가( $M = 41.22, SD = 12.54$ ) 더 높았다, ( $t(45) = -6.997, p < .001$ ).

#### 논 의

연구 1에서는 경쟁과 협력 상황에서 두 가지 비대칭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경쟁과 협력 상황으로 조작한 후 비대칭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대인지각에서는 차이가 나타났지만 자기지각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협력 집단에서는 대인지각 비대칭성과 자기지각 비대칭성 모두를 관찰할 수 없었고, 경쟁 집단에서는 대인지각 비대칭성은 나타났지만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관찰할 수 없었다. 타인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자신이 타인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인지 능력 과정으로 인해(Jones & Nisbett, 1972; Pronin et al., 2001; Pronin et al., 2007; Pronin & Kruger, 2007; Ross & Nisbett, 1991; Van Boven et al., 1999) 일반 상황에서 대인지각 비대칭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Pronin et al., 2001; Pronin et al., 2007; Pronin, Gilovich, & Ross, 2004; Pronin & Kruger, 2007)의 결과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경쟁과 협력 상황에서 인지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김영조, 2014; Carnevale & Probst, 1998; Norton et al., 2013; Stapel & Koomen, 2005; Toma et al., 2010)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Lewis & Fry, 1977; Pruitt, 1983; Putnam & Jones, 1982; Pruitt & Lewis, 1975; Walton & McKersie, 1965; Wilson & Putnam, 1990). 따라서 넓은 사고를 하며 정보 교환이 활발한 협력 상황에서는 상대의 조망을 더 잘 인식하기 때문에 대인지각 비대칭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좁은 사고를 하고 상대의 정보만을 획득하고 자신의 정보는 숨기고자 하는 경쟁 상황에서는 내가 상대를 인지하는 만큼 상대가 나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대인지각 비대칭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인

지각 비대칭성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대인지각 비대칭성이 조작 이전보다 이후에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수치였다. 이 결과는 경쟁이 대인지각 비대칭성을 유지시킬 뿐 더 심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쟁 상황에서 대인지각 비대칭성이 심화되지 않는 이유로는 과제의 대면 상황을 들 수 있다. 대면 상황에서는 손짓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와 상대의 억양이나 음성의 떨림, 강약과 같은 부언어적 단서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동원된다(Trevino, Daft, & Lengel, 1990). 다양한 의사소통 정보가 이용 가능할 경우 개인은 상대방을 좀 더 친밀하게 지각할 수 있다(정태연, 김종대, 2004). 따라서 이러한 대면 과제 특성상 경쟁 상황의 비대칭성이 심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1에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1에서 사용한 퍼즐 과제 때문에 자기지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퍼즐 과제는 인지 능력과 창의력을 요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상대 참가자의 퍼즐 수행 정도를 통해 대인지각이 달라지는 것은 가능했지만 자기지각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다른 종류의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2에서 연구 1을 재검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는 개인차 요인을 검증하여 자기지각 비대칭성 연구의 분야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Pronin et al., 2004; Pronin et al., 2007; Pronin & Kruger,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개인이 자신을 얼마나 잘 관찰하고 잘 통찰하고 있는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기를 잘 관찰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지식(self-knowledge), 그중에서도 특히 사적 자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Nasby, 1989; Scheier & Carver, 1977; Turner, Gilliland, & Klein, 1981). Fenigstein과 동료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은 자의식(self-consciousness)을 ‘개인이 주의의 초점을 자신에게 두는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를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 불안의 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개인중심 성향을 갖고 있으며(조궁호, 명정완, 2001), 자신과 타인을 구분되는 존재로 보며 자신의 독특한 특성이나 태도, 신념 등을 중요시하는 독립적 자아해석(independent self-construal)을 한다. 따라서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이 실제로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연구 2

연구 2는 연구 1에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에 대해 확인하고,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관련성을 가진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2에서는 자기지각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을 가정하고, 이들이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 자의식

Fenigstein과 동료들(Fenigstein et al., 1975)은 자의식을 기질 특성이라고 보고, 자의식의 수준 차이에 의해서 개인 간의 행동과 태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자의식을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이라는 세 하위 요소로 분류하였다. 사적 자의식이란 개인이 자신의 사고와 감정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도와 가치, 동기, 감정과 같은 개인 측면들을 인지하는 경향으로, 내적 측면에 주목하는 특성이다. 공적 자의식은 타인 눈에 보이는 사회적 존재인 자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다. 타인의 평가, 인상 등 자신이 타인에게 보이는 측면에 주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불안은 사람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공적 자의식의 결과로 나타난다. 자의식의 하위 요소 중 사적 자의식이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는 안혜연(2010)의 선행연구에서 다른 바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적 자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기지각 비대칭성 수준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른 연구(Nasby, 1989; Scheier & Carver, 1977; Turner et al., 1981)에 의하면 사적 자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지식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송보라와 이기학의 연구(2009)에 따르면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확신하는 정도인 자기개념 명확성(Campbell, Trapnell, Heine, Katz, Lavallee, & Lehman, 1996)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에 일관성이 있으며, 자신에 대해 상당히 정확하고 상세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Scheier, 1980).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사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적 자의식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자기지각, 그 중에서도 '내가 나를 아는 정도'가 높게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자기지각 비대칭성의 경우에도 내가 나를 아는 정도가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독립적 자아해석

자아해석(self-construal)이란, 개인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규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Markus와 Kitayama(1991)는 자아해석 양식을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독립적 자아해석(independent self-construal)은 개인이 스스로가 타인과 구별되고, 독특하며, 자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독립적 자아해석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독특한 태도나 신념, 목표, 그리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주장과 자기표현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권리(권리를 주장할

줄 안다. 또한 독립적 자아해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self)를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자신만의 사고나 느낌, 행동을 통하여 자기를 인식한다(Markus & Kitayama, 1991). 즉, 독립적 자아해석을 하는 개인에게는 자기 자신이 자아를 정의내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상호의존적 자아해석(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은 관계성이 강조되며 변화 가능하고 유연한 자아로 설명된다. 이 관점에 의하면 개인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때 타인과의 관계성과 같은 요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다르게 행동을 한다.

독립적 자아해석이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는지 직접 살펴본 연구는 없다. 하지만 자신만의 사고와 느낌, 행동을 중요시 생각하며 그를 통하여 자신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독립적 자아해석은 사적 자의식과 유사하다. 실제로 개인중심 성향이 높고 독립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집단중심 성향이 높고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보다 사적 자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조궁호, 명정완, 2001). 또한 독립적 자아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며, 타인의 행동은 내부 귀인하는 특성을 지닌다(김정식,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립적 자아해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지식에 관해서 과대평가할 수 있으며, 타인을 평가할 때 상황과 기질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 귀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립적 자아해석이 자기지각 비대칭성에 사적 자의식과 동일한 방향으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제외한 독립적 자아해석만을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주목하였다.

## 가 설

가설 3.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협력 상황보다 경쟁 상황에서 더 관찰될 것이다.

가설 4-1. 사적 자의식은 자기지각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 요인일 것이다.

가설 4-2. 사적 자의식은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 요인일 것이다.

가설 5-1. 독립적 자아해석은 자기지각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 요인일 것이다.

가설 5-2. 독립적 자아해석은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 요인일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은 후 심리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 참가자 94명을 모집하였다.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참여 대가로 크레딧을 제공했다. 경쟁 조건 참가자가 46명, 협력 조건 참가자가 48명이었다. 각 조건 배정은 무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측정도구

#### 자의식

본 연구에서는 사적 자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Fenigstein와 동료들(Fenigstein et al., 1975)의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SCS)를 김은정(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의식 척도는 사적 자의식 10문항, 공적 자의식 7문항, 사회불안 6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사적 자의식(예: 나는 늘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공적 자의식, 사회 불안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척도는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5점: 아주 그렇다)이며 김은정(1994)이 번안한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3이다. 문항 앞부분에 '다음의 질문들은 귀하의 자기(self)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의 지문을 제시하여 문항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 독립적 자아해석

Singelis(1994)가 개발한 자아해석 척도(Self-Construal Scale: SCS)는 타인과 구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독립적 자아해석 척도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 자아해석 및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경향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자아해석 척도(예: 내 일차적 관심은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만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ingelis(1994)가 개발한 자아해석 척도를 김현미 등(김현미, 방희정, 소유경, 육정, 김은경, 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척도는 6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6점: 매우 많이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69 ~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5이다. 사적 자의식 바로 아래에 이어지도록 문항들을 배치하여 동일한 지문을 사용하였다.

####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

연구 1에서 사용하였던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 설문지 중 자기지각 비대칭성을 측정하는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여덟 가지 특질과 포괄적인 비대칭성 측정 문항을 합쳐 총 아홉 가지 문항으로 비대칭성 문항을 구성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과 '상대방은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으로 짹을 이루었으며, '전혀 모른다' 1점에서부터 '매우 잘 안다' 8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기지각 비대칭성을 측정하는 설문의 조작 전 설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내가 나를 아는 정도가 .87,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는 .96이었다. 조작 후 설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내가 나를 아는 정도가 .92,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는 .96이었다.

### 경쟁과 협력 조작

인지 과제인 숫자 퀴즈 과제(Yang, Qi, Guan, Hou, & Yang, 2012)와 창의력 과제인 미로 찾기 과제(Baas, De Dreu, & Nijstad, 2011), 두 가지 과제를 사용하여 경쟁 조건과 협력 조건을 조작하였다. 숫자 퀴즈 과제는 소수점 둘째자리 숫자의 곱셈 문제 스무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미로 찾기 과제는 난이도가 유사한 두 종류의 미로로 구성하였다. 경쟁 조건에서는 두 과제 모두 참가자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커버스토리와 상대 참가자의 수행을 알 수 있는 자리 배치, 간식 보상의 제공으로 경쟁을 유도하였다. 숫자 퀴즈 과제는 2분 동안 상대방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맞추도록 했고, 미로 찾기 과제는 상대방보다 더 빨리 미로의 출구를 찾도록 지시하였다. 협력 조건에서는 숫자 퀴즈 과제는 2분 동안 상대방과 협력하여 평균보다 더 많은 정답을 맞추도록 했고, 미로 찾기 과제는 상대방과 협력하여 평균적 수행 시간보다 더 빨리 미로의 출구를 찾도록 안내하였다. 경쟁과 협력 두 조건 모두 수행 정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였다. 경쟁 조건에서는 퀴즈를 더 많이 맞추고 미로 과제를 빨리 해결한 참가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협력 조건에서는 평균보다 과제 수행율이 높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보상을 제공하였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경쟁 조건과 협력 조건에서 조건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과제를 수행할 때의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 절차

참가자가 도착하면 실험 안내 후 실험 참가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도록 했다. 그 후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대화 가이드라인(연구 1과 동일)을 주고 5분 간의 대화 시간을 제공했다. 대화 시간 동안 실험 진행자는 실험실 밖에서 대기했다. 대화 시간이 종료된 후,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 설문지를 먼저 실시하고 그 후 자기지각 비대칭성 설문지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이 설문지 작성은 마친 다음 과제와 보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숫자 퀴즈 과제 실시 후 미로 찾기 과제가 이어졌다. 과제가 끝난 뒤 보상을 제공하고, 조작 점검 문항이 포함된 사후 자기지각 비대칭성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완료 후, 연구 목적에 대해 디브리핑하였다. 그리고 사후 동의서 작성 후 종료하였다.

## 결과

### 조작점검

경쟁과 협력의 두 조건으로 조작한 것이 적절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작점검 문항을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쟁 조건 집단( $M = 2.74$ )보다 협력 조건 집단( $M = 7.21$ )에서 더 과제 상황을 협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78.458) = -22.122, p < .001$ .

### 실험 처치 전 자기지각 비대칭성

연구 1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일반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비대칭성 9문항을 모두 합산하여 '내가 나를 아는 정도',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범주로 분류하였다. 표 4에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나를 아는 정도'와 '타인이 타인을 아

표 4. 경쟁과 협력 이전 자기지각 비대칭성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측)
자기지각	내가 나를 아는 정도	48.70	7.71	3.692	< .001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44.39	10.89		

는 정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 실험 처치 후 자기지각 비대칭성

경쟁 집단과 협력 집단으로 나누어 과제를 수행한 후 각 조건에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정리하였다. 경쟁 조건에서 자기지각의 비대칭성이 관찰되어, '내가 나를 아는 정도'와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협력 조건에서는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아는 정도'와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체 간 요인을 경쟁과 협력 집단, 개체 내 요인을 내가 나를 아는 정도와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로 설정하였다. 먼저 집단의 주효과가  $F(1, 92) = 3.977, p = .049$ 로 유의하였으며, 집단과 자기지각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F(1, 92) = 9.547, p = .003$ . 따라서 가설 3인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협력 상황보다 경쟁 상황에서 더 관찰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참가자 내 변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F(1, 92) = 2.979, p = .080$ . 경쟁 집단의 승패에 따라서는 자기지각이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나를 아는 정도( $t(44) = -0.033, p = .973$ ),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t(44) = -0.534, p = .596$ ) 모두 마찬가지였다.

#### 사전사후 비대칭성 변화

경쟁 집단과 협력 집단의 사전사후 비대칭성 차이를 알아보았다. 자기지각 비대칭성 점수는 '내가 나를 아는 정도'에서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를 뺄셈하여 계산하였다. 경쟁 집단의 경우 사전( $M = 5.15, SD = 11.24$ )과 사후( $M = 5.37, SD = 11.95$ ) 간 통계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t(47) = -0.163, p = .872$ . 협력 집단의 경우 사전 자기지각 비대칭성( $M = 3.50, SD = 11.45$ )에 비해 사후 자기지각 비대칭성( $M = -3.08, SD = 10.67$ )이 감소하였다,  $t(47) = 4.927, p < .001$ .

####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의 자기지각 비대칭성과의 관계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 그리고 자기지각 비대칭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표 6으로 정리하였다. 사적 자

표 5. 경쟁과 협력 이후 자기지각 비대칭성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측)
경쟁	내가 나를 아는 정도	49.26	8.73	3.046	.004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43.89	12.32		
협력	내가 나를 아는 정도	49.10	9.29	-1.100	.277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50.63	7.73		

표 6.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 자기지각 비대칭성 상관관계

	사전 자기지각 비대칭성	사후 자기지각 비대칭성	사전 '내가 나를 아는 정도'	사후 '내가 나를 아는 정도'
사적 자의식	.30**	.25**	.24**	.28**
독립적 자아해석	.08	.21*	.35***	.30**

\* $p < .05$ , \*\* $p < .01$ , \*\*\* $p < .001$

의식은 사전 자기지각 비대칭성 정도, 사후 자기지각 비대칭성 정도, 사전의 내가 나를 아는 정도, 사후의 내가 나를 아는 정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독립적 자아해석의 경우에는 사후 자기지각 비대칭성 정도, 사전의 내가 나를 아는 정도, 사후의 내가 나를 아는 정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사전 자기지각 비대칭성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p = .231$ ).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의 경우에는  $r = .14$ 의 상관을 보였으며 유의하지 않았다( $p = .096$ ).

다음으로는 사적 자의식, 독립적 자아해석이

자기지각 비대칭성에 갖는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7에 정리하였다. 사전 자기지각에서 '내가 나를 아는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 두 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 모형이 유의하였다,  $R^2 = .159$ ,  $R(2, 91) = 8.576$ ,  $p < .001$ . 사적 자의식은 사전 자기지각의 '내가 나를 아는 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독립적 자아해석 또한 사전 자기지각의 '내가 나를 아는 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이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표 7.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 자기지각의 관계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2$	F
사전 자기지각	내가 나를 아는 정도	사적 자의식	.201	2.070*	.159	8.576***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독립적 자아해석	.318	3.273**		
	내가 나를 아는 정도	사적 자의식	-.167	-1.626	.055	2.626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독립적 자아해석	.187	1.821		
사후 자기지각	내가 나를 아는 정도	사적 자의식	.241	2.458*	.145	7.697**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독립적 자아해석	.264	2.696**		
	내가 나를 아는 정도	사적 자의식	-.005	-0.051	.002	0.092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독립적 자아해석	.045	0.428		
자기지각 비대칭성	사전	사적 자의식	.298	2.956**	.093	4.664*
		독립적 자아해석	.036	0.359		
	사후	사적 자의식	.230	2.285*	.094	4.722*
		독립적 자아해석	.174	1.726		

\* $p < .05$ , \*\* $p < .01$ , \*\*\* $p < .001$

하지 않았다,  $R^2 = .055$ ,  $R(2, 91) = 2.626$ ,  $p = .078$ .

경쟁과 협력 조건으로 데이터를 분리하지 않고 94명의 전체 데이터를 사용해 개인차 요인과 사후 자기지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후 자기지각의 경우, 종속변인이 ‘내가 나를 아는 정도’이며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이 독립변인인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2 = .145$ ,  $R(2, 91) = 7.697$ ,  $p = .001$ .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사후 자기지각에서 ‘내가 나를 아는 정도’가 커졌으며 독립적 자아해석 또한 마찬가지로, 더 독립적으로 자아를 해석할수록 사후 자기지각에서 ‘내가 나를 아는 정도’가 커졌다. 사후 자기지각의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을 독립변인으로 둔 회귀모형은 유의하지 않았다,  $R^2 = .002$ ,  $R(2, 91) = 0.092$ ,  $p = .913$ . 또한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의 변인은 각각 사전 자기지각의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설 4-1 ‘사적 자의식은 자기지각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 요인일 것이다’와 가설 5-1 ‘독립적 자아해석은 자기지각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 요인일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사전 자기지각 비대칭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경우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2 = .093$ ,  $R(2, 91) = 4.664$ ,  $p = .012$ . 사적 자의식이 높을 경우 사전 자기지각 비대칭성 또한 커거나 독립적 자아해석은 사전 자기지각 비대칭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주지 못했다. 사후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종속변인인 경우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2 = .094$ ,  $R(2, 91) = 4.722$ ,  $p = .011$ . 사후 자기지각 비대칭성 마찬가지로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사후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독립적 자아해석은 사후 자기지각 비대칭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설 4-2 ‘사적 자의식은 자기

지각 비대칭성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 요인일 것이다’와 가설 5-2 ‘독립적 자아해석은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정적 관련성을 가진 요인일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가 개인차 요인과 상황 요인 두 가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차 요인과 상황 요인 모두를 고려한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탐색적인 조절 효과 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쟁/협력 조작이 자기지각(내가 나를 아는 정도,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과 자기지각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적 자의식과 경쟁/협력 조작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사후측정 한 내가 나를 아는 정도,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자기지각 비대칭성을 종속변인으로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적 자의식은 내가 나를 아는 정도에 경쟁/협력 조작이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못하였고( $R^2 = .077$ ,  $B = .636$ ,  $t = 1.107$ ,  $p = .819$ ),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에 대해서도 조절 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R^2 = .109$ ,  $B = -.656$ ,  $t = -0.973$ ,  $p = .322$ . 자기지각 비대칭성에도 마찬가지로 조절 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R^2 = .198$ ,  $B = 1.010$ ,  $t = 1.407$ ,  $p = .604$ .

독립적 자아해석과 경쟁/협력 조작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내가 나를 아는 정도,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 자기지각 비대칭성을 종속변인으로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적 자아해석은 내가 나를 아는 정도에 경쟁/협력 조작이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못하였고( $R^2 = .092$ ,  $B = .165$ ,  $t = 0.434$ ,  $p = .583$ ),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에 대해서도 조절 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R^2 = .101$ ,  $B = -.128$ ,  $t = -0.283$ ,  $p = .716$ . 자기지각 비대칭성에도 마찬가지로 조절 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R^2 = .181$ ,  $B = .192$ ,  $t = 0.397$ ,  $p = .679$ .

## 논 의

연구 2에서는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일반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경쟁과 협력 상황에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연구 1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일반 상황의 자기지각 비대칭성을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의 '내가 나를 아는 정도'가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보다 더 높게 나타나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경쟁과 협력 상황의 자기지각 비대칭성도 다르게 나타났다. 협력 상황에서는 '내가 나를 아는 정도'와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가 차이가 없어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쟁 상황에서는 '내가 나를 아는 정도'가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자기지각 비대칭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 상황에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대칭성 연구(Pronin et al., 2001; Pronin et al., 2007; Pronin & Kruger, 2007; Ross & Nisbett, 1991; Van Boven et al., 1999)의 결과를 재확인해주는 결과이다.

협력 상황에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관찰되지 않음과 동시에 '타인이 타인을 아는 정도'가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와 대면하여 협력한다는 상황 특성과 인지·창의력 과제 특성으로 인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상대에 대한 친밀감과 호감이 증가하는 대면 상황의 특성(정태연, 김종대, 2004)과 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협력 상황의 특성(Pruitt & Lewis, 1975; Wilson & Putnam, 1990)은 타인이 타인 스스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참가자가 통찰 할 수 있게 도와주며, 타인의 자기지각에 대해 호의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인지·창의력 과제 특성상 참가자는 상대방과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 활발하게 일어나는 의사소통으로 형성된 호의적 관계를 바-

탕으로 참가자들은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지각했을 수 있다.

또한 경쟁 상황에서 비대칭성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대면 상황의 과제 특성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대면 상황은 비언어적 단서와 부언어적 단서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이 동원된다(Trevino et al., 1990). 다양한 의사소통 정보가 이용 가능할 경우 개인은 상대방을 좀 더 친밀하게 지각할 수 있다(정태연, 김종대, 2004).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이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관련성 있는 요인인지 살펴보았다. 사전 자기지각과 사후 자기지각에서, '내가 나를 아는 정도'를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이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사전과 사후 자기지각 비대칭성의 경우에는 사적 자의식이 이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가 나를 아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사적 자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지각하는 것에서 스스로가 타인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겼다. 이는 자기 내적 측면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나를 아는 정도가 더 크며, 따라서 타인보다 자신이 더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적 자의식 수준과 독립적 자아해석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지식 수준이 높으며(Nasby, 1989; Scheier & Carver, 1977; Turner et al., 1981) 자기를 잘 통찰하기 때문에(Pronin et al., 2004; Pronin et al., 2007; Pronin & Kruger, 2007) 자기지각 비대칭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안혜연, 2010)의 결과를 재확인하였으며 자기지각 비대칭성 관련 요인을 확장시켜 확인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 요인과 개인 요인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inder(2005)와 노혜경(2011)은 다자 갈등 상황에서 상황(협상 구조의 양립 가능성)의 주효과는 나타났으나 개인 특성(개인주의, 경쟁주의, 협조주의)은 주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Pruitt와 Carnevale(1993) 또한 개인적 요소(성별, 성격요소, 연령, 인종, 자기가치감, 위험추구경향)는 경쟁이 발생하는 협상 결과를 잘 예측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 특성이 더 결과를 잘 예측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개인 요인의 영향이 상황 요인보다 미미하여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 종합 논의

사회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 대인관계는 필수적이다.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은 타인을 인지, 지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오류를 범한다. 인지 오류 중 타인과의 인지 조망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지각된 비대칭성이며 비대칭성은 친밀도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연구를 통해 경쟁과 협력의 두 가지 사회적 상황에서 비대칭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자기지각 비대칭성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인지각 비대칭성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반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람들은 타인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타인을 더 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인지각 비대칭성이 협력 상황보다 경쟁 상황에서 더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람들은 상대와 협력할 때는 내가 타인을 아는 정도와 타인이 나를 아는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여겼지만, 상대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타인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타인을 더 잘 있다고 생각했다. 대인지각 비대칭성의 경우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Jones & Nisbett, 1972; Pronin et al., 2001; Pronin et al., 2007; Pronin & Kruger, 2007; Ross & Nisbett,

1991; Van Boven et al., 1999) 자기지각 비대칭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1에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재검증하고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관련 있는 개인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2를 실시하였다. 과제 수행 단계를 간단히 하고 자기지각 비대칭성 관련성 요인을 함께 조사한 연구 2에서는 일반 상황에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타인이 타인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협력 상황보다 경쟁 상황에서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력 상황에서는 자신을 아는 정도에 나와 타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쟁 상황에서는 타인보다도 내가 더 자신을 더 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은 '내가 나를 아는 정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사적 자의식은 자기지각 비대칭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의 자기지각 비대칭성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각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의 특성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퍼즐 과제는 인지 능력이나 창의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상대 참가자의 퍼즐 완성 정도를 통해 대인지각이 달라지는 것은 가능했지만, 자기지각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다른 종류의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리 인지 과제와 창의력 과제인 미로 찾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두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의 타인을 떠올리고 그 상대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측정한 선행연구(박지선, 2004; 안혜연, 2010)와는 달리 참가자 두 명이 쌍을 이루어 서로에 대한 비대칭성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실제 지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쟁 상황과 협력 상황에서 비대칭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여 상황 조건에 따라 비대칭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비대칭성의 연구 분야를 비대칭성의 상황 요인으로 확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지각 비대칭성과 관련된 개인차 요인으로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이 있다는 것과, 요인의 수준 차이에 따라 자기지각 비대칭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확장하였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결정한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쟁 상황에서 타인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을 하고 근거 없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정적인 자기편향에 빠질 위험성이 존재하고 잘못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대인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올바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을 통해 상호 간 비대칭성을 줄이고 서로 신뢰하는 대인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협력 상황보다 경쟁 상황에서 대인 지각 비대칭성이 더 발생한다는 사실은 상호 간 신뢰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신뢰의 부족은 경쟁 상황에서의 낮은 성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구 2에서 자기지각 비대칭성만을 재검증하였고 대인지각 비대칭성을 재검증하지 않아 비대칭성과 관련된 개인차 요인에 대한 탐색이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상황 요인과 개인 요인의 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적 자의식과 독립적 자아해석이 대인지각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더 다양한 개인차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황 요인(경쟁, 협력)과 개인 요인이 어떤 관계를 갖

는지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경쟁과 협력 상황에서 개인의 경쟁심이나 협동심 정도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경쟁심과 협동심을 통제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연구 1, 2 참가자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어울림성 경향을 더 나타내고 상대를 더 친밀하게 지각하는 특성이 조작 전과 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참가자를 남녀 모두로 설정하고 비대칭성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과제 상황이 모두 대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서로 마주 보고 과제를 하는 상황 특성이 참가자들 간의 비언어적·부언어적 의사소통을 촉진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다방면의 의사소통이 경쟁과 협력 상황의 조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면 상황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경쟁과 협력이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영룡 (2007).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영향력 지각의 비대칭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조 (2014). 경쟁적 상황과 협력적 상황이 비유사 확장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 자기해석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5(2), 241-253.
- 김은정 (1994). 우울증상 지속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및 행동 변인들.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식 (2011). 자기-타인 평가에서 자기해석과 종결욕구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2), 307-329.
- 김지경 (2006).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이 사회적 딜레마상황에서 협동행동에 주는 영향.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3), 31-44.
- 김현미, 방희정, 소유경, 육정, 김은경 (2006). 한국 남녀 대학생 집단에서 자아해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437-458.
- 노혜경 (2011). 게임이론을 이용한 다자간 협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4), 1-26.
- 박웅호, 김정근, 이광오 (2016). 경쟁적 상황과 협력적 상황이 대학생들의 집단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16(1), 23-40.
- 박지선 (2004). 대인지각과 자기지각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보라, 이기학 (2009). 사적 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95-205.
- 안혜연 (2010). 대인지각과 자기지각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의 결정요인과 그 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1999). 사회적 역할관계에 매팩화된 지각이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73-199.
- 정태연, 김종대 (2004). 가상공간에서의 대인지각: 면대면 조건과의 비교 및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30.
- 조궁호,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한규석 (2017).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bele, A. E., & Wojciszke, B. (2007). Agency and comm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751-763.
- Anderson, J. C., & Narus, J. A. (1990). A model of distributor firm and manufacturer firm working partnerships. *Journal of Marketing*, 54(1), 42-58.
- Baas, M., De Dreu, C. K., & Nijstad, B. A. (2011). When prevention promotes creativity: The role of mood, regulatory focus, and regulatory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5), 794-809.
- Binder, J. (2005). *Konfliktmanagement in multilateralen Verhandlungen*. Doctoral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Universitaet Tuebingen, Germany.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arnevale, P. J., & Probst, T. M. (1998). Social values and social conflict in creative problem solving and 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00-1309.
- Dunning, D., Griffin, D. W., Milojkovic, J. D., & Ross, L. (1990). The overconfidence effect in social pre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568-581.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Friedrich, J. (1996). On seeing oneself as less self-serving than others: The ultimate self-serving bias? *Teaching of Psychology*, 23(2), 107-109.
- Gilbert, D. T., & Malone, P. S. (1995). The correspondence bias. *Psychological Bulletin*, 117(1), 21-38.
- Jones, E. E., & Harris, V. A. (1967).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1-24.
- Jones, E. E., & Nisbett, R. E. (1972). The actor and the observer: Divergent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ehavior.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 (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pp. 79-94).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Kessler, R. C., Price, R. H., & Wortman, C. B.

- (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1), 531-572.
- Lewis, S. A., & Fry, W. R. (1977). Effects of visual access and orientation on the discovery of integrative bargaining alternativ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0*(1), 75-92.
- Maki, J. E., Thorngate, W. B., & McClintock, C. G. (1979). Prediction and perception of social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2), 203-220.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cArthur, L. Z. (1981). What grabs you? The role of attention in impression formation and causal attribution. In E. T. Higgins, C. P. Herman, & M. P. Zanna (Eds.), *Social cognition: The Ontario Symposium*, (pp. 201-246). Hillsdale, NJ: Erlbaum.
- Nasby, W. (1989). Private self-consciousness, self-awareness, and the reliability of self-repor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6), 950-957.
- Nisbett, R. E., Caputo, C., Legant, P., & Marecek, J. (1973). Behavior as seen by the actor and as seen by the observ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2), 154-164.
- Norton, D. A., Lambertson, C. P., & Naylor, R. W. (2013). The devil you (don't) know: Interpersonal ambiguity and inference making in competitive contex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0*(2), 1-16.
- Pronin, E., Berger, J., & Molouki, S. (2007). Alone in a crowd of sheep: Asymmetric perceptions of conformity and their roots in an introspection illu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585-595.
- Pronin, E., Gilovich, T., & Ross, L. (2004). Objectivity in the eye of the beholder: Divergent perceptions of bias in self versus others. *Psychological Review, 111*(3), 781-799.
- Pronin, E., & Kugler, M. B. (2007). Valuing thoughts, ignoring behavior: The introspection illusion as a source of the bias blind spo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4), 565-578.
- Pronin, E., Kruger, J., Savitsky, K., & Ross, L. (2001). You don't know me, but I know you: The illusion of asymmetric insi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4), 639-656.
- Pruitt, D. G. (1983). Strategic choice in negoti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2), 167-194.
- Pruitt, D. G., & Carnevale, P. J. (1993). *Mapping social psychology series. Negotiation in social conflict*. Belmont, CA, US: Thomson Brooks/Cole Publishing Co.
- Pruitt, D. G., & Lewis, S. A. (1975). Development of integrative solutions in bilateral nego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4), 621-633.
- Putnam, L. L., & Jones, T. S. (1982). Reciprocity in negotiations: An analysis of bargaining interac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49*(3), 171-191.
- Ross, L.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Distortions in the attribution proces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 (pp. 173-220). NY: Academic Press.
- Ross, L., & Nisbett, R. (1991). *The person and the situation*. NY: McGraw-Hill.
- Scheier, M. F. (1980).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on the public expression of personal belie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512-514.
- Scheier, M. F., & Carver, C. S. (1977). Self-focused attention and the experience of emotion:

- Attraction, repulsion, elation,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9), 625-636.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80-591.
- Skinner, S. J., Gassenheimer, J. B., & Kelley, S. W. (1992). Cooperation in supplier-dealer relations. *Journal of Retailing, 68*(2), 174-193.
- Stapel, D. A., & Koomen, W. (2005). Competition, cooperation, and the effects of others on 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1029-1038.
- Tetlock, P. E. (1988). Monitoring the integrative complexity of american and soviet policy rhetoric: What can be learned? *Journal of Social Issues, 44*(2), 101-131.
- Thomas, L. E., Davoli, C. C., & Brockmole, J. R. (2014). Competitive interaction leads to perceptual distancing between actor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40*(6), 2112-2116.
- Toma, C., Yzerbyt, V., & Corneille, O. (2010). Anticipated cooperation vs. competition moderates interpersonal proje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2), 375-381.
- Trevino, L. K., Daft, R. L., & Lengel, R. H. (1990). Understanding manager's media choices: A symbolic interactionist perspective. In J. Fulk & C. Steinfield (Eds.), *Organization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p. 71-94). London, Newbury: Sage.
- Turner, R. G., Gilliland, L., & Klein, H. M. (1981). Self-consciousness, evaluation of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Research Personality, 15*(2), 182-190.
- Vallone, R. P., Griffin, D. W., Lin, S., & Ross, L. (1990). Overconfident prediction of future actions and outcomes by self and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582-592.
- Van Boven, L., Kamada, A., & Gilovich, T. (1999). The perceiver as perceived: Everyday intuitions about the correspondence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188-1199.
- Walton, R. E., & McKersie, R. B. (1965). *A behavioral theory of labor negotiation: Analysis of a social interaction system*. New York: McGraw-Hill.
- Watson, D. (1982). The actor and the observer: How are their perceptions of causality divergent? *Psychological Bulletin, 92*(3), 682-700.
- Wilson, S. R., & Putnam, L. L. (1990). Interaction goals in negotiation.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13*(1), 374-406.
- Wisman, J. D. (2000). Competition, cooperation, and the future of work. *Peace Review, 12*(2), 197-203.
- Yamauchi, H. (1998). Effects of actor's and observer's roles on causal attributions by Japanese subjects for success and failure in competitive situations. *Psychological Reports, 63*(2), 619-626.
- Yang, J., Qi, M., Guan, L., Hou, Y., & Yang, Y. (2012). The time course of psychological stress as revealed by event-related potentials. *Neuroscience Letters, 530*(1), 1-6.

1 차원고접수 : 2018.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8. 10. 12.

최종게재결정 : 2018. 11. 27.

## The Effect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on the Asymmetry of the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Knowledge

Gibbeum Lee

Hea Kyung Ro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differences in asymmetry of knowledge betwee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Study 1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on interpersonal asymmetry and intrapersonal asymmetry. Participants, in 46 pairs, were assigned to either the competitive or cooperation condition, and questionnaires measuring asymmetry were administered before and after the manipulation. Before the manipulation, asymmetry in intrapersonal knowledge was observed but asymmetry in interpersonal knowledge was not. After the condition manipulation, asymmetry was observed in the competition condition more than the cooperation condition. There was no change in the asymmetry of the knowledge in competition condition and the asymmetry of the intrapersonal knowledge in cooperation condition. However, the asymmetry of interpersonal knowledge in cooperation condition decreased after cooperation manipulation. Study 2 examined the effect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on the asymmetry of intrapersonal knowledge that was not observed in Study 1 and individual differences related to the asymmetry of intrapersonal knowledge. Participants, in 47 pairs, were assigned to either the competitive or cooperation condition. Prior to the manipulation, questionnaires measuring private self-consciousness, independent self-construal and the asymmetry of intrapersonal knowledge were administered and the asymmetry of intrapersonal knowledg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after the manipulation. The asymmetry of intrapersonal knowledge was observed before the manipulation, and after the condition manipulation the asymmetry of intrapersonal knowledge was greater in the competitive condition than in the cooperative condition. Also,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independent self-construal were correlated with intrapersonal perception. However, no moderating effect of the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independent self-construal was observed.

*Key words : competition, cooperation, asymmetry of knowledge, interpersonal perception, intrapersonal perception, private self-consciousness, independent self-construal*